

SK, 간질치료제 기술 미국에 수출

생명공학기업 뉴로넥스와 판권 계약 ... 코 점막에 분사 뇌로 전달

SK㈜는 간질치료제 <디아제팜>을 코 안에 뿌려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미국 생명공학기업인 뉴로넥스에 수출했다.

1960년대부터 급성간질 증세의 응급 치료제로 쓰이는 <디아제팜>은 주사나 좌약으로 투약하는 형태여서 사용하기 불편해 개선이 요구돼왔다.

SK가 수출한 기술은 스프레이 방식으로 간질 환자의 코 점막에 뿌려 약 성분을 뇌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.

SK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문이 개발한 간질치료제 기술은 미국에서 현재 임상 1상(Phase) 실험까지 마친 상태여서 2-3년 후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SK는 기술 수출에 따른 초기 계약금을 받았고 임상시험 단계별로 기술료를 받게 되며, 시판이 이루어지면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된다.

SK는 국내와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간질치료제 기술의 판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26>